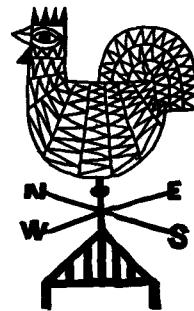


# 아프리카大陸의 養鷄現况 1

## 잠비아



〈세계가금학회 한국지부〉

잠비아는 중앙 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로 서쪽으로는 앙고라, 북쪽으로는 자이레 탄자니아 동쪽으로는 마라위 모잠비크와 접하고 있으며 국토면적이 752,614km<sup>2</sup>이고 인구 457만을 가진 흑인 통치 국가들 중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이다.

수도가 루사카(Lusaka)이며 대부분의 도시가 해발 3,000~5,000피트의 고원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리의 생산이 풍부하여 중공으로 부터 많은 기술원조를 받고 있다.

1964년 영국으로부터 독립된 후 양계업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설정하여 온 국력을 양계업에 쏟았다고 해도 과언이 없을 정도로 급격히 양계업이 성장하여 “1985년 동아프리카의 畜產物生產의 展望”이라는 U·N보고서에 세계 농업의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라고 기술 될 정도였다.

잠비아의 가축사육현황(단위 1,000)

품종	년도	61~65	1973년	1974년	1975년
소		1,279	1,700	1,748	1,797
말		1	1	1	1
당나귀		1	1	1	1
산 양		156	190	195	199
면 양		36	29	29	29
돼 지		71	115	119	122
닭		4,400	7,500	7,863	8,227

1975년 말 현재 닭의 사육수수는 823만 수로서 인구 1인당 1.8수의 극히 많은 숫적인 분포는 아니지만 독립될 당시에 25만 수의 사육수수에서 1973년 750만수로 증가한 양계산업의 발전으로 1967년에는 양계산물의 자급이 이루어졌고 1968년에는 아프리카 여러나라에 수출하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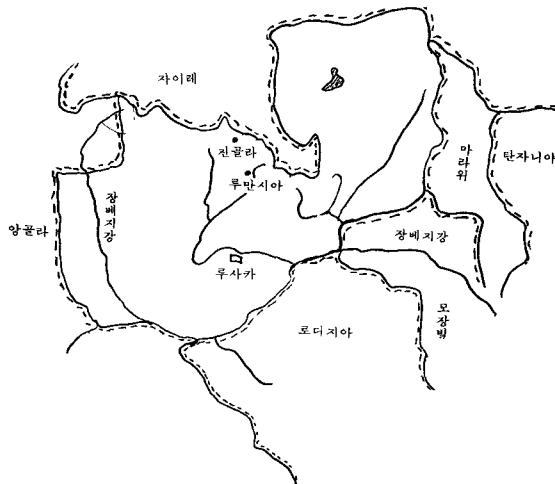
1964년 독립된 이후 10년동안 양계산업의 발전상황을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다.

잠비아의 양계산업의 성장(1964~1973년)

병아리생산	계란	육계	가격
(수)	(개)	(수)	
1964 250,000	17,400,000	650,000	K 10,240,000
1973 7,500,000	123,500,000	6,100,000	K 119,850,000

어떻게 이와같은 급속한 발전이 10년동안에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다른 여러나라들로부터 의아할 정도로 의심이 생기겠지만 양계산업은 신생독립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사업으로 설정하면서 차근 차근, 현재의 능력 이상으로 무리하지 않고 열성적이고 계획적인 노력에 대한 댓가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다.

또 이들은 독립이 될때 그들은 양계산업 발전을 위한 목표를 5 가지로 설정하여 이것을 실행하여 왔던 것이다.



첫째로 양계산물 수입을 막고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양계산업을 확대시키자는 것이고, 둘째로 새로운 양계업무를 담당할 직책을 정부기관에 두고, 셋째, 연구기관과 농민교육센터에서 실제 사양가와 전국 민들에게 양계교육을 시키기위한 기관의 설치였던 것이다. 그리고 넷째로 잠비아 농민들에게 양계산업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모든 기술 정보의 서비스 센터의 설치와 다섯째로 실제 양계사양가들로부터 양계 산업발전과 확대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위의 목표를 성취시키기 위한 계획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확고한 기술적 기반이 형성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독립 직후엔 서서히 발전되어 오다가 1968년에는 3 - 4년동안에 쌓아온 힘과 기반으로 1967년보다 50%이상의 양적인 증가가 이루어면서 자급자족이 이루어졌고 1969년에는 1968년에 비해 70%의 증가를 보였던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 더욱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들이 이루한 과정을 살펴보면 :

먼저 산란계 산업에서 10년동안 현격한 양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역시 잠비아에 큰 수익의 원천이 될수 있었다는 것이 더욱 발전의 가능성은 가능할 수가 있게된 것이다. 1964년에서 1967년까지 계란이 1740

만 개에서 3,600만개로 100%증가 되었고 1968년에 50%의 증가 1969년에는 70%증가로서 년 9,300만개의 계란을 생산하게 되었으며 이와동시에 정부에서는 2년동안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파이생산을 우려하여 매년 8 - 10%의 양적인 증가를 꾀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이들 국민들은 항상 1968년과 1969년은 정말 그들에게 역사적인 해 였으며 그들의 후손들이 양계문제에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는 이 역사적인 2년을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육계산업에서는 12주동안의 사육 후에 판매가 가능한 품종을 사육하고 있는데 산란계산업과는 달리 독립이전의 많은 사육자들을 바탕으로 하여 더욱 급격히 발전해 왔다. 1964년부터 1968년에는 매년 평균 50%씩 증가하여 1964년 65만수에서 1968년 320만수에 달하게 되면서 정부의 파이 생산 우려로 매년 15%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1973년에는 610만수의 양적인 증가를 나타내었다.

1964년 년간 250,000수의 병아리 생산이 1973년에는 750만수에 달하여 잠비아의 모든교통수단인 차량, 기차, 비행기에서 언제든지 병아리 운반상자를 볼 수가 있고 병아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귀중한 화

물로 취급이 되고 있다. 국내의 양계산업 발전과 동시에 이들은 1967년부터 중동부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양계산업의 발전을 도우면서 1967년에는 13만 5천수의 병아리를 수출하였고 1973년에는 127만 5천수를 켜나, 우간다, 탄자니아 그리고 자이레 등지에 수출하였으며 1974년에는 9백만 수의 병아리를 수출하였다.

잠비아 국민들의 두 번째 목표였던 양계 담당 공무원은 농민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자들로서 현재 높은 직위에 21명이 있는데 이들 중 7명은 국립자원 개발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고 나머지 14명은 외국에서 양계연구과정을 마친 사람들로서 부화, 종계관리, 일반 사양관리, 양계교육 그리고 생산물 판매 등의 여러분야에 책임을 맡고 있지만 아직도 양계산업 발전의 주역인 실제농가와 접하는 기회가 적어 잠비아에는 양계지식이 충분한 인재를 더욱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세 번째 목표였던 양계교육은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으로 이 양계교육을 마친 사람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으로 주요정책사업에 구성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1966년부터 “라운시아” 근처에 있는 마새라 연구소의 국립양계 교육단이 처음으로 양계교육을 실시하였고 그 이래로 1974년까지 34회의 정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규 양계교육을 시켰는데 이동안에 350명의 정부고관을 비롯하여 군인, 경찰 그리고 교도소의 죄수들까지도 교육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1973년까지 7년동안 양계교육과정을 마친 일반 사양가나 단체모임의 회원들은 13,000여 명이나 되어 이들이 영세농민들에게 재교육을 시키는 효과가 아주 큰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다각적이며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는 잠비아의 양계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토

착화시키기 위해서 거국적인 농촌 양계발전계획을 정부에서는 설정하였는데 이는 모든 농민들, 양계조합, 주부들의 모임, 잠비아 국립서비스농장들과 같은 어떤 일정한 단체나 개인이 자발적이고 협동하면서 국민 스스로가 양계산업 발전에 참여를 꾀하는 정책으로 1967년에 8,500수의 산란계를 가지고 년간 3천만개 이상의 계란을 생산하였고 또 57만 2천수의 육계를 생산하였다. 이런 농촌 양계발전운동으로 인하여 농가수입은 높아졌고 계란과 고기의 소비증가로 국민 건강이 더욱 우수하게 되었으며 6년동안 계속된 쿠퍼벨트지역의 병아리를 분양받아 독립할 수 있게 되었다. 독립후의 국민들 마음속에 맺어진 목표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맷가는 세계의 성공된 농업사례중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1970년부터 농림부에서는 턱을 기르지 않는 단체나 정부기관에 국가의 주요사업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각단체마다 수십수의 병아리를 보급시킬 정도로 열성이었다.

제 1차 잠비아 발전계획은 양계산업의 발전이 양적인 면에서 그들의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훌륭한 발전으로 끝이났고 제 2차 잠비아 발전계획을 설정하여 주로 질적인 양계산업의 발전으로 힘을 기울이고 있다.

1964년 독립과 동시에 카운타 대통령의 정책에 호응해왔던 농민, 여러방법의 양계계획, 협동농장, 국립양계봉사단, 부녀자들의 양계모임, 젊은 농민들의 모임, 군인, 경찰, 죄수, 그리고 도시의 거주자들까지 모든 국민들은 지난 10년동안의 양계산업발전으로 뭉쳐진 아름다운 결실을 가지고 앞으로 잠비아의 산업발전에 낙관적인 전망을 하면서 그들에게는 아직도 힘든 일들이 언제나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며 독립신생국으로서 주로 양계산업에 의하여 국가발전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